

## 코오롱, 울산공장 무재해 3000일 달성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이 무재해 3000일을 달성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은 6월7일 울산석유화학단지내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유화부문)에서 무재해 목표달성을 기념하는 인증패 수여식과 함께 무재해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무재해 10배(3000일)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워 목표달성 인증패를 받았다.

또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직원(100명)이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1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코오롱은 앞으로도 지역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09>